

한국과 EU, 글로벌 기후재정에서 GCF가 중심적인 역할 할 것으로 생각

<http://news.gcfund.org/eu-south-korea-see-central-role-for-gcf/>

2015.9.17, 송도/ 제8차 한-EU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EU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강조하고 올해 말 파리에서 보편적기후협정을 성공적으로 타결하는 데에 본연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Donal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재정, 특히 녹색기후기금(GCF) 통한 기후재원을 다루는” “야심차고 효과적인 “ 협정을 위해 상호간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장을 대신한 세실리아 말름스트롬(Cecilia Malmström)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세 지도자는 Post-2020 신기후체제를 위해 “GCF를 완전히 운영되도록 하고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하 재정 매커니즘의 핵심 운영기구가 되도록 만든다” 는 포부를 확인했다.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동 성명은 올해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1)를 앞두고 발표되었다.

헬라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은 “GCF는 한-EU 공동성명을 환영한다. 이번 성명은 파리의회의까지 다른 정부들도 함께 동참하자는 촉구 목소리(a rallying call)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EU는 GCF 중요 공여국으로, EU 국가들의 공여금액은 GCF 공여금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GCF는 계속해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가능한 정부들은 COP21 이전에 GCF에 대한 재정공여 약속을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양자회담은 글로벌 복지 및 안전한 미래 라는 폭넓은 주제로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다루었다. 정상들은 에너지 안보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력 계획들을 공유하고, 국가별기여방안(INDCs) 제출을 촉구했다.

녹색기후기금(GCF)은 개도국이 저탄소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경로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고 지구온난화 2도씨 제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신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